



런던 아동 병원의 한 병실, 그곳에는 네살바기부터 열두 살 난 아이까지 모두 일곱 명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들 중 곧 퇴원하는 엘리자베스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백혈병을 앓고 있어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남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환자들은 엘리자베스를 몹시 걱정하고 안쓰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음악 듣기를 몹시 좋아하는 엘리자베스가 청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가오는 엘리자베스의 생일 날 기쁘게 해줄 방법을 찾느라 머칠을 쑥덕거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의견이 '음악회'를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기특한 생각을 안 담당 간호사는 상황이 어려운지 알면서도 음악학교 교사로 있는 수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하루가 위험한 환자였으며 그 중에는 목소리를 잃은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3주 동안이나 연습을 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떠맡은 수녀는 최선을 다해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린 꼬마는 수녀 옆에서 악보를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치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 병실을 한두 시간 떠나 있는 동안을 틈타 아이들은 몰래 노래연습을 했습니다. '음악회'의 비밀은 엘리자베스의 생일날까지 무사히 지켜졌습니다.

드디어 엘리자베스의 생일날! 엘리자베스는 영문을 모른 채 병원 예배당에 앉혀졌습니다. 얼마 후 병동의 친구들이 무대위로 나와 송글송글 땀을 맺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라져가는 청력으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노래소리를 듣고 있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무대 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의 부모와 간호원들은 눈물 때문에 아이들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주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제 그 여섯 아이들의 목소리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엘리자베스만이 아이 엄마가 되었고 그녀는 이 세상에서 거의 마지막에 들은 이 여섯 합창단원의 어린 목소리들이 부른 노래를 마음의 귀로 생생히 듣고 있었습니다.

"기억되는 찬양은 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4권 2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 7월 14일
☎ 520-9464 71 Khyber Pass Rd.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사랑은...(곱추엄마를 위한 사랑)



곱추였던 여자와 곱추였던 남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였습니다. 유전을 염려하였지만 부부의 걱정과는 달리 무척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곱추엄마는 아이를 지극 정성으로 살폈고, 착한 아이도 엄마를 잘 따르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아이는 초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엄마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한번도 학교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이가 도시락을 놓고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학교로 갖다주는게 나은지... 도시락을 갖다 주면 아이가 무척 창피해할텐데...' 이런저런 고민끝에 아이와 아이의 친구들 몰래 학교에 살짝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아이의 학교,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저쪽 나무 밑에서 아이가 보였습니다. 체육시간이었나봅니다. 엄마는 순간 당황했고 학교를 급히 빠져나가려했습니다. 아이가 볼까봐서... 아이의 친구들이 볼까봐서... 서러운 맘을 감추지 못하고 힘든몸을 이끈채 조심조심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이가 엄마를 발견하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놀라며 더욱 빠른 발걸음으로 교문을 빠져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쪽 나무 밑에서 아이가 교문쪽을 바라보며 손으로 입을 모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곱추엄마의 눈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안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주셨기에(롬 5:8) 우리는 찬송을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 가신주 날 받으옵소서"

◀눈물나는 밤엔 우머의 촛불을▶ *지난주 그 중학교 역사 시험시간
<문제>: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16년간 흑산도 유배기간동안 흑산도 근해 어종을 조사하여 펴낸 책 이름은?(정답은... 자산어보 茲山魚譜)
▶ A학생 답(지난주 'G 선상의 마리아'를 쓴 그 학생): 월간 낚시

엄마가 딸에게,
세계지도를 걸으라
지구본도 하나 장만하거라
내가 추구하는 거리까지만
갈 수 있음을 기억하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행은 몰래 하거라
드러나지 않으면 하늘에 쌓이고
그것이 우연이 드러난다면
큰 기쁨이 된다

주 일 예 배

(교회창립 3주년 기념, 임직식)

(* 표는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인 도 자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48장 다 갈 이

기 도 Prayer 김교섭 장로

<임직식>

*권 면 Rev. Paulin

*서 약 1.장로 2.집사 3.권사

*교우들의 서약 안수위원 (안수위원: 목사, 장로) 안수위원

*안수기도 선 포 임직자들의 봉헌 특 송 신약성경 필사본 임 직 자

운형권 집사

<교회창립기념주일 감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열왕기상 6:14-22(구 519)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교회로 교회되게 합시다"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271장 다 갈 이

*성문밖헌금기도 인 도 자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김경구 집사 가정 2절:다같이) 다 갈 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 내 위 원	가족찬송	Tea Time
7	박상옥	이광희	사카시다.최기향	김교섭	권용일, 김경구
14	김교섭	이금선	양경배, 김동숙	김경구	김반석, 김성국
21	박일영	이기중	윤형권, 신영화	김반석	김영길, 김종건
28	사카시다	이재영	김교섭, 정희자	김성국	김종우, 김종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달살뜰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청년부: 토 저녁 6시	

◀교회소식▶

1. 오래 된 것 같은 느낌도, 벌써 3년인가 하는 느낌도 가지고 오늘 창립 3주년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예배 후 식사를 나누며 감사와 기쁨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때 이룰게..." 3년전 창립예배 광고입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창립예배를 드린 것은 성령님의 의지하며 하는 목회를 일부터 라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예배당 사용 허락을 받지 못했을 때의 맥빠짐과 예배처소를 찾아 얼마를 다녔는지 밤에 몸살을 앓던 기억도, 어느 작은 교회 젊은 목사님의 친절함, 모두가 되돌아보기에 이제는 행복한 순간이 아닐 것이 없습니다.

누가 '교회 창립을 하면서 꿈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아직도 고상한 대답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오슬랜드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속물. 근성에 젖어 있는 목사라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실 겁니다.

창립예배인데도 목사아빠 체면 봐주지 않고 설교시간에 잠이 든 10살 짜리 아들을 보며 '얼마나 재미없는 설교면 잠이 들었을까'하며 자책해 봅니다.

축하해 주러 오신 주님의 교회 한 장로님 가족과 저희 가족만이 드린 창립예배, 넓은 예배당에 접하나 찍어 놓은 듯 합니다.

텅 빈 자리...
 텅 빈 마음... "』 -1999년 7월 한국신문에 실린 창립예배 광고-

- 교우소식: 그동안 은혜가운데 한국 다녀오셨습니다.
 *최재학, 노은숙 집사 *윤형권 집사
 *모처럼 방문하신 민광호, 김심홍 집사님 가정도 오실때가 되어가는군요.
- 오늘 임직받으십니다
 *<장로>김종건, 이광희, 정덕수 <안수집사>김영길, 박일영, 이재영, 최재학
 <권사>김순자, 노은숙, 이규임, 정희자, 지찬영
- 오늘은 "성문밖 주일" 로 지킵니다
 *성문밖 주일은: 우리교회가 개척될 때의 어려움 돌아보며 이웃교회와 한몸됨을 나누려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은 헌금을 우리교회로 드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세워진 개척교회, 한국의 고향교회, 외국선교 등에 개인별(혹은 교우, 구역)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화요일 저녁 7:30. 교회
- 수요성경강해: 주일에서 다음주일은 너무 멀니다. 수요일에 말씀을 배우고 도전 받을 때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7:30)
- 감 사: 학생부, 청년부수련회를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주심과 남겨선교회와 개인적인 도움과 봉사등 감사합니다.
 *학생부수련회 장소(Henderson)가 좋아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 장소로 예약도 하고 왔습니다.
- 상담실 "로템나무 아래" 개설 운영: 한정옥 집사(정신과 전문의)
 *심리, 의료, 세무, 주택 종교분야의 전문가와 상담 혹은 홈페이지를 통한 통신상담
 *<장소> 교회 *<일시>매주 목요일 10am- 4pm (025-513-057)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한 수시 상담: my.dreamwiz.com/underodem19
- 우리교회 홈페이지 접속 방법(외우기 쉽게 개설): my.dreamwiz.com/nzcalvary
 *calvary.ca.to 혹은 calvary.bora.to